

전시·행사 소식

의금부 금오계첩

기간 2019.10.18.~2020.04.19.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기획전시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전시관 맞은편 조선시대 건평방에 위치했던 의금부義禁府를 조명한 전시다. 《금오계첩金吾契帖》은 조선시대 최고의 사법기관이었던 의금부의 관료인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들이 신임 관료의 신고식인 면신례 과정에서 제작해 동료들과 나누어 가졌던 기념 서화첩이다. 의금부와 관료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성균관과 반촌

기간 2019.11.08.~2020.03.01.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A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과 그 마을인 '반촌泮村' 그리고 그 곳에 살았던 성균관 유생과 반인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성균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그림 《반궁도泮宮圖》(1747)와 성균관 유생 윤기尹愷(1741~1826)의 시문집 『무명자집無名子集』 등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성균관의 명륜당을 옮겨다 놓은 전시실과 반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등으로 18세기 대학촌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시였다.

장중보옥_도자소품.

장엄공덕_고려사경

기간 2019.12.16.~2020.02.22.

장소 호림박물관 신사분관

두 개의 전시실에서 도자소품과 고려사경을 각각 선보인 전시다. <장중보옥_도자소품>에서는 고려청자와 백자, 조선 백자, 분청사기 등 93여 점을 소개했다. <장엄공덕_고려사경>전에는 12건의 고려시대 사경과 1건의 조선시대 사경이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다수의 소장품이 새롭게 공개되었다. 옛 사람들이 손바닥 안에 넣고 애지중지하였을 도자소품과 품격 높은

사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였다.

조선·근대 서화전

기간 2019.12.21.~2020.03.15.

장소 서울서예박물관 상설전시실

가나아트 이호재 회장이 2011년 예술의 전당에 기증한 한국의 고종세 금석문 탁본과 조선·근대 서화작품을 선보이는 두 번째 기증전이다. 추사 김정희, 퇴계 이황, 자하 신위, 봉래 양사언, 미수 허목 등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글씨와 함께 흥선 대원군, 심전 안중식, 위창 오세창, 일종 김충현 등 근대 대표 서화가의 작품 33건 40점을 전시하였다.

김정희와 청조문인의 대화

기간 2020.01.18.~2020.03.15.

장소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시실, 실험전시실

한중 국가 예술 교류 프로젝트 두 번째 전시의 한국 귀국전이다. 중국국가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과 청대 문인들의 글씨, 연구자료, 편지 등 120여 점을 한국에서 다시 전시했다. 한중교류 역사의 절정기인 19세기를 김정희와 청조 문인의 학예 대화의 시기로 보고 청조학예의 동전東傳과 조선화, 세계화 과정을 조명했다.

수표교 - 한양에 비가 내리면

기간 2019.12.18.~2020.03.15.

장소 청계천박물관 기획전시실

조선시대 한양 개천에 놓여있던 다리 중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다리는 수표교水標橋뿐이다. 수표교는 풍류를 즐기는 선비, 천주교인, 구리개의 약방을 찾는 이, 그리고 조선에 정착한 청상까지 각양의 역사가 배어 있는 곳이다. 역사적 기록 및 유물 전시 공간과 몰입형 영상체험실로 구성되어 수표교 역사를 조명하였다.

서울의 전차

기간 2019.12.20.~2020.09.27.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20년 전 전차 개통을 기념하며 서울역사박물관과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시다. '전차'에 관련된 도시의 기억과 시민의 일상을 회상하는 형식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소장품과 한국전력공사 전기박물관 소장 보스트위크 사진첩, 한국전력공사 인사처 기록관의 자료를 전시했다.

베트남 옥에오 문화

- 바닷길로 연결된 부남과 백제

기간 2019.12.21.~2020.03.15.

장소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

베트남 남부 해안 지역 옥에오(Óc Eo) 유적은 1~7세기의 부남국扶南國(Funan) 유적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고고학자 및 문화재기관이 공동 발굴 조사해온 곳이다. 이 전시는 한성백제박물관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재)대한문화재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국제교류전으로서 조사 성과를 종합하고 옥에오 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

- 핀란드 디자인 10,000년

기간 2019.12.21.~2020.05.10.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국립중앙박물관과 핀란드국립박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지난 10,000년 동안 핀란드 지역에서 변화무쌍하게 발전한 물질과 문화, 기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소개하는 전시이다. 과거가 미래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또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한국과 핀란드 두 나라의 물질문화가 얼마나 비슷하면서도 다른지를 새롭게 보여주었다.

아름다운 순간: 중국 광시 복식문화

기간 2019.12.24.~2020.06.21.
장소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

중국 서남단에 위치한 광시좡족자치구의 12개 소수 민족 옷은 모두 직접 손으로 짜고, 물들이고, 수놓은 것들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립대구박물관과 광시민족박물관이 공동 개최하여 중국 광시민족박물관 소장품으로 광시 지역 소수민족의 삶을 소개한다.

쥐구멍에 별 든 날

기간 2019.12.24.~2020.03.01.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2

경자년 쥐띠 해를 맞이한 특별전으로, 전시는 '다산의 영민한 동물, 쥐'와 '귀엽고 친근한 동물'로 구성되었다. 유물과 영상 60여 점을 전시하여 쥐의 생태와 상징, 문화상을 짚어보았다.

사리장엄舍利莊嚴

- 탑 속 또 하나의 세계

기간 2020.01.10.~2020.04.26.
장소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익산박물관의 대표 전시품인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출토 사리장엄, 경주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장엄,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 그리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 등 우리나라 대표 왕실발원 사리장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였다.

2020년 제1회 신수유물 소개전

- 지도가 그림에 스며들다

기간 2020.02.18.~2020.06.14.
장소 부산시립박물관 부산관 미술실

부산박물관이 기증받거나 구입한 소장품, 보존처리가 끝난 소장품을 새롭게 소개하

는 전시다. 이번에 처음 소개한 소장품은 <진주성도평州城圖 10폭 병풍>이다. 제작 시기는 1830년대로 추정되며, 가로 폭이 432cm인 이 병풍은 여러 진주성도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작이다.

고구려와 한강

기간 2020.04.10.~2020.06.07.
장소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

고구려는 475년에 백제 왕도王都 한성을 함락시켰으며, 한강 유역에 한산군을 비롯해 많은 군현을 두고 551년까지 다스렸다. 따라서 한강 유역에는 군사보루, 주거지, 무덤, 비석 등 고구려 사람들이 남긴 유적·유물이 매우 많다. 이번 전시에서 조사 연구 성과와 최신 발굴 자료 및 연구 경향을 종합하였다.

베트남 옥에오 문화

- 고대 해상 교역의 중심 옥에오

기간 2020.04.21.~2020.06.28.
장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옥에오(Óc Eo) 문화는 1-7세기 베트남과 캄보디아 남부 메콩강 삼각주의 광활한 지대에서 동·서양의 해상 교역을 기반으로 발달했던 고대 문화를 말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베트남의 옥에오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동남아시아 고대국가인 부남국扶南國(Funan)과 한반도의 관계를 조명하여 아시아 해상 교류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되었다.

새로 발굴된 강원의 보물

기간 2020.04.28.~2020.05.24.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2

최근 10년 동안 강원지역 발굴조사 성과 중 중요 유물 10건 25점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전시다. 영월 흥녕선원지 출토 반가사유상과 중도 유적 출토 고구려 금 귀걸이, 우리나라 최초의 화살촉 등 전국 최초 출토품

이거나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출토품을 전시했다.

꽃비 내리다

- 보물 제1270호 영천 은해사 괘불

기간 2020.05.06.~2020.10.11.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서화관 불교회화실

2020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1750년 4월에 완성된 영천 은해사銀海寺의 괘불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불과 극락의 찬란한 모습을 그린 <염불왕생첩경도念佛往生捷徑圖>도 8월 23일까지 함께 선보인다.

시대를 짚어낸 재상:

백사 이항복 종가 기증전

기간 2020.05.06.~2020.09.13.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서화관 서화실II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1556~1618)의 15대 종손 이근형 선생은 종가에서 대대로 간직해 온 문화재 17점을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전시는 이 기증을 기념하여 이항복의 공신초상과 현존 유일의 호성공신扈聖功臣 일등 교서 등 백사 이항복 종가 기증품과 함께 관련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화를 소개한다. 이항복의 업적을 살펴보고 명재상의 후손들이 지켜온 보물에 깃든 정신을 느껴볼 수 있다.

가야 만화방

기간 2020.05.06.~2020.09.06.
장소 국립김해박물관 가야누리 열린전시실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가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그린 그림들과 '국립김해박물관 가야웹툰 공모전' 수상작,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소재로 한 웹툰을 전시했다. 전시장 안에서 편하게 앉아 다양한 역사 만화책을 읽을 수 있는 전시이다.

숙종대왕 호시절에

기간 2020.05.06.~2020.07.19.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II

숙종肅宗(재위 1674~1720)은 현종顯宗(재위 1659~1674)과 명성왕후明聖王后的 유일한 아들로써 완벽한 정통성을 바탕으로 즉위하여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왕이었다. 숙종은 선대 국왕들을 추송하는 작업을 하면서 조선 왕실의 역사를 재정리했으며, 양란으로 무너진 조선 사회를 복구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숙종 대의 문물을 통해 조선 후기 중흥의 시대를 조명하는 전시이다.

미술관에 書: 한국 근현대 서예전

기간 2020.05.06.~2020.07.26.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서예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전시이다. 전통시대부터 이어져 온 서화가 근대 이후 선전과 국전을 거치며 현대성을 띤 서예로 다양하게 진입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서예, 전각, 회화, 조각, 인쇄매체 등 총 300여점의 작품을 소개하여 서예와 다른 미술 장르와의 관계를 조명해 미술관에서 서예가 전시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 역병에 맞서다

기간 2020.05.11.~2020.06.21.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중근세관 조선2실

코로나19로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조선 시대 사람들은 전염병의 공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를 조명하는 전시이다. 마마자국이 남은 관리들의 초상화가 포함된 《등준시무과도상첩登錄試武科圖像帖》, 허준이 1613년에 쓴 전염병 응급 지침서인 『산천벽온방新撰辟瘟方』 등이 전시되었다. 지금보다 더 참혹했을 역병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이겨내고자 했던 선조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현 상황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남도불교문화연구회 기증 탁본전

— 남도 불교 천년의 자취

기간 2020.05.11.~2020.07.19.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

남도불교문화연구회에서 기증한 탁본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지역 불교문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전시이다. 남도의 사찰에는 사적비, 고승 비문, 탑, 동종 등에 수많은 금석문이 남아 있다. 탁본으로 오랜 세월 이 지역에서 형성되고 이어져 온 불교문화와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태풍고백

기간 2020.05.12.~2020.07.05.

장소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제주문화를 형성한 주요 요소 중 하나인 태풍을 인문·자연과학적으로 조명한다. 태풍 관련 역사 기록,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역대 태풍 자료, 태풍 길목에 사는 제주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생활 자료 등 50여 점이 전시된다.

2017~2019 호남고고학 성과전

기간 2020.05.12.~2020.07.19.

장소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나주박물관이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한국문화유산협회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호남지역에서 발굴한 고고유적과 출토품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고고학자의 노고와 새롭게 밝혀진 역사의 조각에서 매장문화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2020민화, 서가의 풍경_책거리·문자도

기간 2020.05.12.~2020.07.31.

장소 호림박물관 신사분관

2013년에 개최한 <민화, 상상의 나라_민화여행>에 이은 두 번째 민화특별전이다. 전시는 책거리그림, 길상문자도, 근현대 작품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8월 <정원의 향기_화조화>, 11월 <화폭 속의 이야기_산수·인물화>로 이어져 1년간 총 세 차례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다.

수복전

기간 2020.05.12.~2020.07.31.

장소 호림박물관 신림분관

신사분관에서 열리는 <2020민화, 서가의 풍경_책거리·문자도> 특별전과 연계하여 도자·공예실에서 길상적인 문양으로 장식된 도자기와 공예품 약 80여 점을 선보인다. 수壽와 복福 외에도 수복강녕壽福康寧이라든가 희喜, 부富, 귀貴, 다多, 남男과 같은 다양한 길상 문자로 장식된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다.

문양예찬 — 회암사에 멋들다

기간 2020.05.12.~2020.08.09.

장소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기획전시실

양주 회암사지 출토 유물과 유구 속 문양의 종류, 디자인, 의미 등을 살펴보고 회암사가 남긴 전통문양의 종교적, 예술적, 현대적 가치에 주목한다. 당시 회암사의 불교사적 위상과 왕실사찰로서의 위엄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현대에 활용될 디자인으로서의 가치까지 확인하는 전시이다.

노랫말 — 선율에 삶을 신다

기간 2020.05.15.~2020.10.18.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실

대중가요 노랫말의 발자취와 노랫말에 담긴 우리말과 글의 묘미를 소개하는 전시다. 대중의 관심사에 따라 형식과 소재를 달리하며, 대중이 살아온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노랫말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손 안의 부처

기간 2020.05.19.~2020.08.23.

장소 국립진주박물관 상설전시실 2층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합천 영암사터 발굴 소형 금동불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이다. 이 불상은 1984년에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영암사터를 발굴할 당시 절의 본당인 금당터 뒤편에 쌓여있던 기와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소형금동불상의 기능과 옛사람들이 호지불護持佛을 휴대하며 소원을 빌었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이다.

한국의 청동기 문화 2020

기간 2020.05.19.~2020.08.09.

장소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 특별전시실

90년대 이후 발굴, 발견된 새로운 유물과 유적으로 구성된 전시로 청동기시대부터 철기 도입 시기까지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고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다.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금속인 청동기와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 청동기문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다.

한양도성의 어제와 오늘

기간 2020.05.19.~2020.08.23.

장소 한양도성박물관

〈기록 자료로 본 한양도성〉 시리즈의 네 번째 전시이다. 1975년 한양도성 보수·복원사업이 시작된 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고, 훼손 혹은 소실되었던 성문을 복원했으며 땅 속에 묻혔던 구간을 새롭게 발견했다. 사진으로 기록된 1960-70년대 한양도성이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한양도성 보수·복원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전시이다.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기간 2020.05.20.~2020.10.05.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1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와 그 속에 기록된 우리 민속의 흔적과 변화상을 찾아보는 전시이다. 〈발 갈고 부종하는 모양〉, 〈여인 방적하고〉 등의 기산 풍속화와 두부판, 씨아, 시치미, 대곤장과 같은 민속 자료 340여 점을 소개한다. 민속박물관이 최근 구입한 기산풍속화와 독일 마르크(MARKK, 전 함브르크 민족학박물관) 소장 79점의 기산풍속화가 처음으로 전시된다.

운종가 입전(笠簾), 조선의 갓을 팔다

기간 2020.05.29.~2020.09.27.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기획전시실

조선의 갓은 시대와 예법과 풍습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빛깔로 제작되었다. 재화와 사람들이 몰려들던 운종가에 있던 ‘입전’과 그곳에서 팔던 조선 남성의 대표적 쓰개 ‘갓’을 소개한다. ‘입전’의 시전풍경市廛風景과 조선 ‘갓’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이다.

빛 × 색 = 홍도 × 채도

기간 2020.06.02.~2020.08.23.

장소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홍도와 채도는 서부 경남의 젓줄인 남강유역의 중심 도시 진주를 대표하는 문화재이다. 진주 남강 유역 출토품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19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홍도와 채도 327점을 최초로 한 자리에 모았다. 홍도와 채도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제작 배경과 기능 등을 조명하는 전시이다.

2020 강원 현대 미술

– 힘있는 강원전, 강원 현대 조각전

기간 2020.06.02.~2020.06.28.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을 기념하며 강원 지역 내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힘있는 강원전과 강원 현대 조각전으로 구성했고, 47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강원 문화유산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 테마전

– 6.25와 국립박물관

기간 2020.06.25.~2020.09.13.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관 조선시대실

6.25 전쟁 중 위기를 겪었던 문화재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전시이다. 전쟁의 불길에 녹아버린 선림원지 동종, 몸통이 사라지고 아랫부분만 남은 〈청화백자용문호〉, 피난길에 옮겨지지 못한 활자장, 부산으로 피난했던 이암의 〈모견도〉 등 현존하는 문화재 이면에 담겨있는 6.25 전쟁 이야기를 보여준다.

서원書院, 우리 곁에 오다

기간 2020.06.30.~2020.08.30.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전주박물관 개관 30주년과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이다. 9개 서원의 주요 지정 문화재를 한 자리에 모아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우수성을 보여주고 조선시대 대표 교육기관인 서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를 이끈 지도자, 선비 정신을 조명한다.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 〈한국의 청동기 문화 2020〉

연계 학술대회

일자 2020.05.21.~2020.05.22.

장소 국립청주박물관 대강당

주최 국립청주박물관, 한국주조기술사학회, 한국청동기학회

• 한국 청동기 제작기술 전통의 새로운 이해(5.21. 한국주조기술사학회)

1. 고조선·삼한 청동기의 제작 전통
- 정인성(영남대학교)
2. 구분마연 청동무기와 제작도구
- 허준양(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3. 동물형대구의 제작기술
- 박장호(영남대학교)
4. 청동삭도의 주조기술과 용도에 대한 고찰
- 윤태영(국립전주박물관)
5. 청동기의 납 성분 고찰
- 박학수(국립중앙박물관)
6. 청동기 주조 및 사용에 대한 실험고고학적 고찰
- 김주호(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분기(5.22. 한국청동기학회)

1. 한반도 청동기시대 설정의 발자취와 연구과제
- 이건무(전 국립중앙박물관장)
2. 작물유체로 본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사회
- 김민구(전남대학교)
3. 사회경제적 변화로 본 청동기시대 전·중기의 분기
- 김범철(충북대학교)
4. 금속유물로 본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시기구분
- 조진선(전남대학교)
5. 초기철기시대의 폐기 제안
- 박진일(국립청주박물관)
6. 일본 야요이[弥生]시대의 분기
- 타케스에 준이치[武末純一](후쿠오카대학福岡大学)

동양미술사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자 2020.05.23.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

• 제1부 일반 발표

1. 인도네시아 고전기 슈리비자야(Srivijaya)의 청동4비관음보살상 연구 - 자카르타국립박물관 소장 청동4비관음보살상을 중심으로
- 김미소(서강대학교)

2. 酒井抱一와 琳派의 江戸 移植

- 김진주(국립중앙박물관)

3. 수당대 아육왕상 연구

- 소현숙(덕성여자대학교)

• 제2부 미술사와 현장

1. 도슨트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
- 김은비(프리랜서)
2. 조선 왕실 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구재 개발 및 운영 연구 : 국립고궁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최나래(국립고궁박물관)
3. 전시기획과 전시디자인
- 하연주(주)영인스페이스, 전 국립고궁박물관
4. 미술사 그리고 전통공예
- 이승주(한국전통문화대학교)
5. 문화유산의 디자인 전략과 활용
- 송혜민(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6. 금석문 조사연구 현황과 과제
- 이종숙(국립문화재연구소)
7. 문화 다양성 확대를 위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시도
- 세계문화관 조성배경과 향후 계획
- 윤상덕(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남도 불교 천년의 증언〉

연계 학술대회 : 남도 불교 천년의 증언, 현장과 전망

일자 2020.06.12.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대강당

1. 전남지역 석탑의 특성 고찰
- 천득염(전남대학교)
2. 『실상사지』와 수철화상비문 판독 100년
- 정선중(광주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3. 조선 후기 송광사 풍암 영각의 건립과 승맥
- 이계표(조선대학교)
4. 나주 다보사 대웅전 벽화의 교학적 함의
- 최성렬(조선대학교)